



고객맞춤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킹스웨이해운



킹스웨이해운 운영기 사장

지난 1998년 12월7일 설립된 킹스웨이해운(대표 운영기)은 이듬해인 1999년 12월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외항부정기화물 운송사업 등록증을 취득, 본격적으로 외항해운에 진출했다.

동사는 외항해운업 진출과 함께 한국-홍콩간 재래정기항로를 개설한데 이어 2000년 3월에는 한국-대만간 정기항로를 열었으며, 이후 대만-태국간 정기항로를 개척하는 등 3국간항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한국을 기점으로 일본과 중국, 동남아항로는 물론, 러시아항로까지 커버하는 등 서비스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더구나, 동사는 지난 1999년 12월 국제해운대리점업 진출과 함께 2001년 9월에는 해운중개업, 2002년 10월에는 선박대여업에 진출하는 등 해운부대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1만7,825DWT와 2만9,101DWT급 벌크선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5,000~7,000DWT급 일반화물선과 벌크선 5척을 장기용선하여 한·중·일, 동남아 및 러시아항로에 투입하여 운항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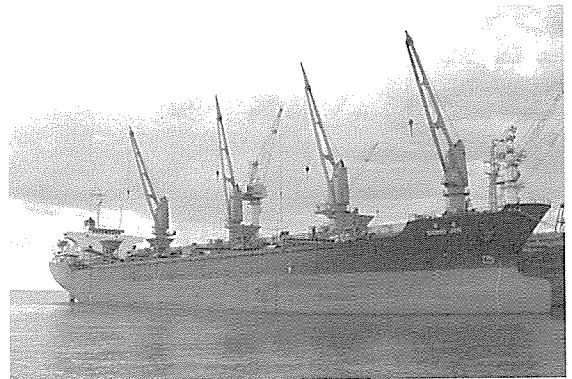
특히, 킹스웨이해운은 동부제강, 세아베스틸, INI 스틸 등 국내철강업체들의 철제품을 국내에서 대만, 홍콩, 태국 방콕 등으로 수송하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지난 2004년 중국산 규사(SILICA SAND) 33만톤을 한국유리공업과 운송계약을 체결했으며, 삼성물산과 베트남산 규사 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 Power의 석탄 수송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밖에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의 항로에 부정기선을 투입하여 철제품 또는 일반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모든 서비스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바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고객맞춤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킹스웨이해운을 이끌고 있는 운영기 사장은 지난 1985년 한국해양대학교(항해학과)를 졸업하여 동지상선 등에서 해기사로 근무한 뒤 한로해운과 운영마리타임을 거쳐 1998년 킹스웨이해운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직원들의 창의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화합을 중시하는 실무를 겸비한 CEO로 알려졌다.



고객감동과 인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파크로드

2003년 8월27일 외항화물운송사업체로 등록한 파크로드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단기간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연간 매출액 1,222억원의 증견선사로 성장했으며, 21세기 주도적인 해운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수립, 묵묵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해 3월 조직구조를 본부별·팀별로 일신하여 담당업무 처리방식이 GRID화 되고, 구성원간의 유대감이 그 어느 조직보다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동사는 이러한 구조개편을 통해 업무중심의 조직구조에서 탈피하여 보다 시스템화된 조직구조로,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특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 중국 및 동남아 신규 화주 개발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WORLD-WIDE 항로까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파나막스급, 핸디맥스급, 핸디급 벌크선을 각각 1천씩 도입하여 이들 선박들이 매출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용선선박은 동남아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중이며, 대양주 및 미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중이다. 용선선박은 대부분 핸디 및 핸디맥스급으로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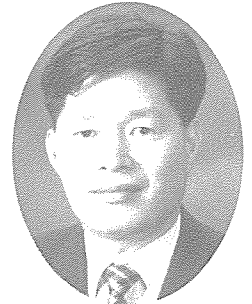
~45,000DWT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동사는 벌크선 영입이 중심인 만큼, 금년에는 핸디사이즈급 벌크선 2-3척을 신규로 확보하기 위해 중국 및 국내 조선소와 다각도로 접촉 중이다. 또

한 3년 이내에 등록선대를 20척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다. 사선과 용선이 취급하는 주요 운송화물은 곡물, 비료, 석탄, 광물 및 철제품 등의 벌크화물이다.

이와함께 동사는 본격적인 중국 시장개척과 정보수집을 위하여 상해에 해외사무소 개설을 준비중이며, 이미 관련 인허가를 득한 상태이다. 이에 앞서 그 동안 중국시장에서는 화주개발, 선박수리 및 Port Control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다져왔다.

현재 파크로드는 선대확충이라는 외형적인 성과와 더불어 임직원 대상 수시교육 등을 통해 내실을 동시에 다져 나가고 있다. 조직구성원 모두가 인화와 단결로 무장하고, 고객감동경영을 모토로 하고 있는 파크로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염은선 사장은 1982년 전남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바로 해운업계에 입문하여 성우해상, 해륙상선을 거치면서 폭 넓은 업무지식과 남다른 능력을 십분 발휘하였고 주식회사 파크로드의 전신인 (주)파크리의 대표이사를 거쳤다. 누구보다 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모토는 사무실에 걸린 명패에서 그리고 직원들의 자연스런 행동에서 그 빛을 더하고 있다.



파크로드 염은선 사장

